

# 이밀(異密) 아르군 및 그가 호라산(呼羅珊)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 호구조사

초코트 (내몽고대학)

아르군(阿兒渾[아아혼])은 몽골 오이라트(斡亦剌惕, Oirat) 부족 출신으로 서 몽골제국 시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역사 인물이다. 그는 몽골 제국의 호라산 등 서아시아 지역을 총관하는 제 4 대 대이밀(大異密)로 임명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 통치의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 건의들을 올렸는 바 그가 발휘한 거대한 작용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가 생존했던 당시의 몽골제국 여러 역사서와 문헌 속에서, 그는 자주 이밀 아르군, 아르군 아카(阿兒渾-阿舍)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는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의 기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몽골 대칸을 보좌하여 현지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를 증가시켰으며 경제발전 등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몽골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 중에서, 서아시아에 대한 몽골의 정복과 통치에 관한 연구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그중에서 일본 학자 혼다 미노부(本田實信)의 논문 <아무다리야 강 등지에서의 행상서성의 건립 ①>은 해당 주제에 있어서 비교적 영향력 있는 논의이다. 그는 문장 중에서, 서아시아에 대한 몽골제국의 관리와 통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논술했으나 몽골제국이 서아시아에 파견한 몇 명의 총독들의 역사 사적과 그들이 실시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하여서는 전면적인 소개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아직 더 상세한 연구를 진행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줄고에서는 혼다 씨의 논문을 기초로 아르군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함과 동시에 그가 호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호구조사의 과정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몽골제국의 통치 방식에 대한 더한층 깊은 고찰과 이해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

① 本田實信, <モンゴル時代史研究>, 東京大學出版社, 1991, p101-127.

## 1. 아르군의 출신 부족 및 초기의 역사 활동

아르군의 생애와 역사 사적들을 소개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그의 생애와 사적들과 연관되는 역사 기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어야 한다. 아르군의 대한 기록으로는 몽골제국 시기에 씌어진 라시드(拉施特, Rashid al-Din)의 <사집(史集)>, 주바이니(志費尼, Juvayni)의 <세계정복자사(世界征服者史)> 등 몇 부의 역사서에 일부분 기재되어있다. 이런 역사서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이 오이라트 부족의 영향력 있는 역사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라시드의 <사집·오이라트부기(部紀)>에서는 아르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 1]

이란과 토란(土蘭) 지역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오이라트 부족 출신의 이밀이 많았으나 그들의 구체적인 소속 갈래는 오직 그들 서로 간에만 알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이밀 아르군 아카라고 있는데 (그의) 출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말하기를, 오고타이 칸 때에 그(아르군)의 부친이 흉년에 그를 잘라이르(札刺亦兒, Jalayir) 부족의 이밀 역노격 합단(亦魯格-合丹)에게 팔아서 소다리 한 짝을 받았다고 한다. 이 이밀은 오고타이 칸의 옆에서 그를 모시는 스승이었다. (역노격이) 자신의 한 아들을 오고타이 칸의 친위대인 체식(怯薛, kheshig)에 보낼 때 아르군 아카도 같이 보냈다. 영리한 그는 점차 큰 귀인이 되었으며 승진을 거듭하여 이란의 국정을 장악하였고 파사합(巴思哈, basqaq)의 직에까지 올랐다.<sup>2)</sup>

<사집·잘리아르부기(部紀)>에도 역시 아르군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예 2]

이르기를, 아르군의 아버지는 가난하고 굶주리던 때에 이밀 아르군을 역노격나안(亦魯格那顏)의 아버지 합단(合丹)에게 팔아 소다리 한 짝을 얻었다고 한다. (합단이) 자신의 한 아들을 오고타이 칸에게 보내어 친위대로 삼게 할 때에 이밀 아르군을 이 아들에게 주어 호위병으로 부리게 하였다. (아르군은) 그의 노복이 되었다. (아르군이) 총명하고 사리에 밝고 말도 잘하였기에 그의 사업은 빠르게 번성하였으며 그의 지위는 그 동년배들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3.

이상의 두 가지 기록에서 아르군의 출신과 성장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록 중의 일부 구체적인 인명이 조금

<sup>2)</sup>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1 권 제 1 분책, 商務印書館, 1992, p197.

<sup>3)</sup>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1 권 제 1 분책, 商務印書館, 1992, p153.

다르게 나옴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 1에서는 “이밀 아르군의 아버지가 아들을 잘리아르 부족의 역노격 합단에게 팔았다”라고 나오지만, 예 2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역노격나안의 아버지 합단”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근접한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찌 됐든, 이상의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의 출신 부족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 또한 장악할 수 있다.

이밀 아르군의 출신에 관한 기록은 이 밖에도 몽골제국 시기 편찬된 기타 역사서들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바이니의 <세계정복자사>는 아르군의 역사 사적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역사서이다. 이 책은 비록 많은 지면을 들여 아르군이 호라산에서의 역사적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출신과 가족에 관하여서는 그리 상세한 내용들을 남기지 못하였다. 아르군의 출신과 가족 상황에 대하여 <세계정복자사>는 아래와 같은 몇 마디로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예 3]

이밀 아르군, 그는 오이라트 부족 사람이며 부친 태출(太出)은 천호(千戶)였다.<sup>4</sup>

여기서 우리는 아르군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천호”였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사집>의 기록에 따르면, 오이라트 부족으로 구성된 천호로는 넷이 있었다<sup>5</sup>. 하지만 이 네 천호에 관하여 역사서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사집>에서도 아르군에 대하여 위의 두 기록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르군의 자손에 대한 기록은 <사서>에 자세히 적혀 있다.

[예 4]

그의 아들들로는 걸래 멀리(乞來-滅里), 탐리아지(塔里阿只), 열올로사(涅兀魯思), 열극집(列克集), 합지(哈只), 역알룩 홀도로(亦幹勒-忽都魯), 불룩도흑(不勒都黑)과 알역랄태(幹亦刺台)가 있었고 손자들로는 고열극(古列克) 등 여럿이 있었다. 그는 딸도 많았다. 그는 여러 딸들을 군주와 이밀들에게 시집 보냈다. 그의 아들 열올로사와 열극집은 칭기즈칸 가문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부마로 되었다.<sup>6</sup>

<sup>4</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03.

<sup>5</sup>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1 권 제 2 분책, 商務印書館, p368.

<sup>6</sup> 라시드 편찬, 餘大鈞 周建奇 번역, <史集> 제 1 권 제 1 분책, 商務印書館, p198.

아르군이 오고타이 칸의 궁정에 들어간 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역사 문헌들에서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세계 정복자사> 중의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르군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예 5]

그는 젊었지만 칸의 궁전에 파견되었고 비척치(必閣赤)로 임용되었다. 칸은 날이 갈수록 그를 더욱 중용하였고 젊을 그를 합반(合班)과 함께 거란에 파견하여 중요한 임무를 집행하게 하였다. 거란에 머무는 기간 그는 칸의 접견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어 칸의 명을 받들고 액득고테무르(額得古鐵木爾)와 코르구즈(闊兒吉思)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다.<sup>7</sup>

액득고테무르는 코르구즈가 조정에서의 지위가 견고하여지기 전에 선제공격을 펼쳐 그의 활동을 칸 조정에 알리려고 하였다. 하여 액득고테무르는 통홀사(通忽思)를 추천하여 칸의 궁정에 들어가 코르구즈에 대해 각종 비방과 모함을 하게 하였다. 진해(鎭海)를 망신주고자 하는 무리들도 그가 없는 틈을 타서 이런 모함들을 이용하여 칸에게 조서를 올렸다. 그 결과 이말 아르군과 홀아바합(忽兒巴哈, Qurbaqa) 및 점사정 가막격이(苦思丁·迦馬格爾, Shamas-Din Kamagar)가 칸의 명을 받고 이 안건을 심사하러 가게 된 것이다.<sup>8</sup>

위의 기록에서 알수 있다시피, 아르군은 오고타이 칸의 궁정에 들어간 후 비척치란 직무를 담당했었는데 이는 <사서>에 기록한 예 1, 예 2의 내용과 일치하다. 하지만 액득고테무르와 코르구즈의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는 찰아홀적[札兒忽赤](심판관)의 신분으로 등장하였다. 몽골 제국 시기 비척치과 찰아홀적은 직무상 기능이 아주 유사하였으므로 필자는 아르군이 오고타이 칸의 궁정에서 비척치와 찰아홀적 두 직무를 겸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2. 몽골고원과 호라산을 오갔던 아르군

칭기즈칸이 서부 정벌을 마치고 몽골초원에 돌아간 후 잘랄 알 딘(札蘭丁)은 인도로부터 호라산으로 돌아와 일부 도시를 다시 점령하고 몽골의 통치에 대한 치열한 저항 운동을 개시해 나갔다. 이로 인하여 작아마혼(縛兒馬渾)이 오고타이 칸의 명을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잘랄 알 딘과 접전하

<sup>7</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03.

<sup>8</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589-590.

게 되었다.

칭기즈칸의 몽골군이 호라산 지역을 점령하였을 당시, 주치(朮赤)는 청테무르(青帖木兒)를 이 지역의 장관으로 임명했었다. 작아마혼이 도착하자 청테무르는 오고타이 칸의 명령대로 작아마혼과 함께 잘랄 알 딘을 진공하여 해당 지역을 수복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작아마혼과 청테무르 사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휘권을 쟁탈하기 위한 갈등이 일어났고 오고타이 칸은 명령을 내려 청테무르에게 지휘권을 넘겨 주었다. 하여 청테무르는 몽골제국이 호라산 지역에 임명한 첫 번째 이밀이 되었다.

청테무르는 호라산의 각 지역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통치를 강화하였고 현지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청테무르가 죽자 낙살이(諾撒耳)가 그를 대신하여 이밀로 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몽골 통치자 내부 및 몽골 통치자와 현지 관원들 사이의 모순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지방 장관의 권력이 점차 팽창되어 제국에 속해야 할 재정 수입마저 지방 장관의 수중에 장악되어 버렸다. 이는 몽골 통치자들에게 상당한 고민을 가져다주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몽골 대칸의 관리와 통치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 작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하여 코르구즈는 이밀로 부임한 후 호구조사, 세금 재징수 등 조치를 취하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호라산과 마잔다란(禡糶答而) 등 지역의 통치 질서를 회복하였다. 하지만 이때 청테무르의 아들 역도테무르(亦都帖木兒, 역득고테무르와 동일 인물)와 코르구즈가 이 지역의 지휘권을 놓고 갈등이 생겼고 각자 대칸 궁정에 가서 상대방을 비방했다. 대칸은 아르군더러 이 안건을 접수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코르구즈의 승소로 마무리 짓게 되었다. 코르구즈는 승소 후 계속하여 이밀을 담당했고 아르군을 호라산에 데려왔다. 아르군은 호라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몽골고원에 파견되었다. 얼마 후 코르구즈는 칭기즈칸 황금씨족 성원 사이에 말로 시비가 붙은 것이 화근이 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투르게네(脫列哥那) 왕비(哈敦)는 오호수(烏滸水, 현 아무강)로부터 파르스(法兒斯, Fars), 그리고 곡아지(谷兒只), 노목(魯木) 및 모탑리(毛塔里) 등 지역의 통치권을 아르군에게 맡겼다<sup>9</sup>.

몽골고원에서 호라산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칙령(札兒里黑, yarlıgh)을 대중들 앞에서 낭독하고 각 지역의 장관을 임명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sup>9</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04.

데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작아마흔과 배주(拜住) 등은 호라산에 전에 부임된 후 전란을 틈타 이 지역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횡포를 부렸다. 특히 오고타이 칸이 세상 뜬 뒤, 여러 왕들은 제각기 지방을 차지하고 자기 지역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마음대로 칙령과 명패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지역적 혼란을 조성하였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아르군은 신속하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감세 정책을 취함으로써 현지인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으며 전에 몽골의 통치를 반대하던 자들도 잇달아 아르군에게로 와서 귀순하였다.

구유크 칸이 즉위하자 아르군은 다시 몽골 대칸의 궁정에 가서 구유크 칸을 알현하였고 구유크 칸은 그에게 호두패(虎頭牌)와 칙령을 하사하였다. 몽골고원에서 호라산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각종 궁전과 원림을 적극 건설하여 현지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때 그의 이런 행동을 반대하는 몽케보라(蒙哥孛剌)가 몽골고원에 가서 구유크 칸 앞에서 아르군을 모함하였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아르군은 직접 궁정에 가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였으나 마침 구유크 칸이 세상 뜨고 연길지대(宴吉只帶, Eljigitei)가 곧 호라산에 주둔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이밀홀신(忽辛)만 칸의 오르도(斡耳朵, 행궁)에 파견하고 자신은 호라산에 남게 된다.

아르군이 연길지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군량과 마초 등 군수물자를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왕들의 가렴잡세와 연길지대의 과도한 군비 요구는 현지 백성들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르군은 또 다시 직접 대칸 궁정에 가게 되었으며 현지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아르군은 조정에서 몽케보라와 날카로운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치열한 변론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 호라산에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대쿠릴타이(大忽里台)에 참가하여 몽케 칸을 찾아 뵈고 그에게 호라산 등 지역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여실히 보고하였다. 이를 들은 몽케 칸은 명령을 내려 아르군더러 책임지고 호라산 등지에서 토지와 호구 조사를 진행하고 세금 징수를 강화하게 하였다.

흘라구(旭烈兀)가 이란에 도착했을 때 아르군은 직접 영접하러 나갔고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얼마후 아르군은 흘라구의 명령에 따라 또 한 번 몽골 대칸의 궁정에 파견되었으며 몽케 칸에게 현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 아바카(阿八哈) 칸 통치 시기 그는 계속하여 각 지역의 세무

사업을 주관하였다. 바라크(八剌)가 일 칸국을 침략하자 그는 일 칸국의 좌로군을 이끌고 싸웠으나 패하였다. 1275년, 아르군은 도사(圖思) 근처의 랄특한(剌忒罕)의 땅에서 죽었으며 그 지역에 묻혔다.

### 3. 아르군이 호라산에서 진행한 호구조사 과정과 의의

몽케 칸을 알현할 때 아르군은 호라산 등지의 조세와 기타 잡세의 징수 과정 중에 발생한 엄중한 문제들을 사실대로 보고하였고, 아로와적(牙魯瓦赤)이 하중(河中) 지역에서 실시했던 세금징수 방식을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세계정복자사>에서는 아로와적이 하중 지역에서 실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따로 상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책의 하권 중 <이밀 아르군 쿠릴타이에 참가하다>라는 장의 내용을 통하여 그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 6]

그들의 결론의 요지는,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각종 조세와 가렴잡세가 너무 잡다하여 백성들이 유실되고 있으므로 조세 징수에 관하여서는 아로와적이 하중 지역에서 실행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이른바 훌복작아(忽卜綽兒, qupchur) 세를 징수하는 것인데, 이 방법에 따르면 각 사람이 해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그의 재산과 납세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단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한 해 동안 다시 그를 찾아갈 수 없으며 기타 다른 명목의 세금을 부과시킬 수도 없었다. 이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sup>10</sup>

이상의 기록을 통하여 추측하건대 “즉 이른바” 뒤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아로와적이 하중 지역에서 실시했던 구체적인 조세 징수 방법 즉 훌복작아(忽卜綽兒, qupchur) 세와 연관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아르군 등 사람들이 호라산 지역에서 아로와적과 똑같은 조치를 취하여 조세를 거두어들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르군은 위의 결정을 몽케 칸에게 보고하였고 몽케 칸은 의견을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렸다.

[예 7]

부유한 자 하나는 한 해에 열 적나(的那)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 비율에 따라 점차 금액을 낮추어 가난한 자는 한 해에 한 적나(的那)의 세금을 바치도록 하며, 이렇게 징수된 세금은 전부 군역(hashar)와 역참

<sup>10</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15.

(yams)과 사신들의 생활 소비(ikhrājāt)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외에는 백성들의 삶에 지장을 주거나 불법적으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더 징수해서는 안되며 뇌물을 받는 것은 더구나 안된다. 그리고 모든 구체적 상황과 변화에 대비하여 상응한 법규(札撒)를 하나씩 제정하였다.<sup>11</sup>

위에 나오는 몽케 칸의 칙령 내용으로 볼 때, 그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부동한 세금 징수 방법을 취하게 한 대목은 분명히 아르군의 건의를 채택한 것이었다. 동시에 몽케 칸은 해당 지역의 최고 권력을 아르군에게 부여하였고 아르군의 친위병(那可兒)들과 기타 지방 관원들도 임명해 주었다.

몽케 칸을 알현하고 호라산으로 돌아온 후, 아르군은 대칸의 명령을 성실하게 집행하였으며 각지에 파견하였던 이밀과 비칙치들을 새로 임명하였으며 토론을 거쳐 징수해야 할 “홀복작아”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하였다.

[예 8]

그리고 대칸의 명령에 따라 이밀과 서기관들을 임명하였고 그들은 연일 모여서 징수하여야 할 홀복작아의 금액 규정문제를 놓고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를,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열 사람 당 한 해에 칠십 노크니적나(魯克尼的那)의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아르군)은 이때에 이밀과 서기관들을 파견하여 호적과 홀복작아를 편성하게 하였다. 호라산과 마잔다란 지역에서, 그는 세 명의 몽골인 이밀을 파견하여 여러 왕들의 대변인으로 삼았고, 또 자신의 친척 뇌홀(腦忽), 울로홀(兀魯忽)의 비칙치 합법합로정 비희석척(哈法舍魯丁·比希昔惕)과 승상 야속정 탐희이(也速惕·塔希耳)에게 모든 권력을 위임하여 (그의) 대변인으로 삼았다. 그는 내만태(乃蠻台)와 나의 부친 살희백저만(撒希伯底萬)을 이라크와 예즈드(耶茲德)에 파견하였으며[중략]... 또 독로마태(禿魯麻台), 살리합불화(撒里合不花)와 멀력극살도로정(蔑力克撒都魯丁)을 파견하여 타브리즈(帖必力思)의 환관(火者) 맥출독정(麥朮督丁)의 협력 하에 호구조사, 천호의 획분과 홀복작아의 징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중략]... 그는 이때 타이반(打耳班)을 거쳐 곡아지(谷兒只), 아란(阿蘭), 아철아배점(阿哲兒拜占)으로 가서 호구조사, 홀복작아, 세금 징수의 작업을 완수하였으며 그 후에는 이라크로 갔다.<sup>12</sup>

상기의 내용들은 이밀 아르군이 호라산 등지에서 진행한 호구조사의 과정과 홀복작아의 금액 규정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번 호구조사는 호라산, 마자다란, 이라크, 예즈드, 곡아지, 아란과 아철아배점 등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호구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경제적 상황을 장악한 기초상에서 위에서 언급한 세

11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15.

12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17-619.



금 정액을 제정하였다. 이로 하여 징수한 세액이 서아시아 현지 주민들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여 일어난 몽골 통치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이밀 아르군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현지 주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몽골의 통치를 견고하게 다지는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르군이 진행한 호구조사가 완수될 무렵, 훌라구가 이란에 도착하였으며 아르군은 케쉬(礪石)에서 그를 뵈었다. 이후 그는 훌라구의 위임을 받아 또다시 몽골고원에 파견되어 대칸에게 현지 상황을 보고하게 된다. 조정에서 아르군은 다른 의견을 가진 호라산 사신들과 변론하여 이김으로써 몽케 칸의 신임을 얻었다. 바로 이 시기에 몽케 칸은 호라산의 여러 지역들을 자신의 친척과 동생들에게 나누어주게 된다.<sup>13</sup>

몽골고원에서 자신의 고장으로 돌아온 아르군은 아란에 가서 훌라구를 만나며 훌라구는 그를 곡아지(지금의 조지아)에 파견하여 또 한 번의 호구조사를 진행하게 한다.

[예 9]

이밀 아르군은 지금 아란 지역에 있는 훌라구를 만나러 갔다. 거기에 도착하여 보고를 드린 뒤, 그는 곡아지에 가서 호구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주민들을 천호로 나누었다. 먼저 번에 정한 훌복작아는 열 사람마다 한 해에 칠십 적나였으나 군역과 역참과 역마의 비용과 군대의 소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당시 규정된 훌복장아로는 지급하기가 어려웠다. 하여 초과된 부분은 원 금액의 비율에 따라 추산하여 조절하기로 하였다[중략]... 아르군은 이런 상황을 위에 보고하였으며, 명령에 따라 부유한 자의 훌복작아를 오백 적나로 다시 규정하고 상응한 비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금액을 낮추어 가난한 자의 한 적나에까지 이르도록 조절하였으며 이로써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치를 취하고 나자 호구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었다.<sup>14</sup>

위의 기록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번 조사 중에서 아르군은 호구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을 천호로 획분하여 훌복작아의 금액을 다시 조절함으로써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부동한 세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밀 아르군이 주관하였던 이상의 지역을 기초로 하여 후일에 일 칸국이 건립된 것을 주지의 사실이다. 훌라구를 머리로 하는 일 칸국의 통치자들은 천호제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현지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통

<sup>13</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20.

<sup>14</sup> 주바이니 저, 何高濟 翁獨健 교정, <世界征服者史>(하책), 內蒙古人民出版社, 1980. P621-622.

치를 실현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현지에서 최초로 호구조사를 진행하고 천호제를 실시한 것은 아르군이었다. 다시 말하여 몽골제국이 이란 등 서아시아 지역에 대한 통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아르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아르군의 역사 사적들과 역사적 역할에 대하여 더 깊은 연구와 더 많은 논의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